



식품·유통가  
특화매장으로  
고객 발걸 잡는다  
L1



Life

국내 제약사  
영양수액제  
시장경쟁 확대  
L2



# 멸종위기종 돕고, 잘피 심어 정화... 생태계 지키는 '환경영웅'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효성

"ESG 경영은 효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정체성" 지난 2021년 효성이 이사회를 열고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영 트렌드 중 하나다. 효성은 이를 통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효성그룹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VOC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백년기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효성은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그룹 내 지주사를 추가로 신설하고 형제간 분할 경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SG 활동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멸종위기종 보호부터 해양 보호까지

효성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철새의 먹이 지원과 해변에서 잘피 보전 및 해안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효성 임직원들은 지난 2월 세계습지의날을 기념해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의 일환으로 경남 김해시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일원에서 아사 위기에서 구조·치료한 독수리 3마리를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행사를 진행했다. 효성은 겨울철새 보호 및 보존 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추가방사 독수리들에게 각각 효성1호, 효성2호, 효성3호 이름을 붙여주고 관리할 계획이다.

독수리는 자연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워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개체수 급감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생물다양성이 보존되는 환경은 기업의 토대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라며 "먹이지원 활동을 비롯해 멸종위기 생물들의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효성은 지난 2022년부터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알려진 잘피의 보전 활동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주사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3개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거제시와 함께 잘피숲 보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1월에 경남 거제시 다포리에 위치한 다포항 해변에서 잘피 채취, 이식 및 해안 정화 활동을 펼쳤다.



멸종위기 지정 겨울철새 먹이 지원 독수리 구조 등 생물다양성 보존활동 탄소저감 위해 해양식물 잘피 식재도

협력사 대상 ESG 전문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지원

임직원들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독려 리사이클 체험으로 재활용 인식 높여

#### ◆ 협력사 ESG 역량 강화로 '친환경 섬유 트렌드' 이끌어

효성티앤씨는 협력사들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EU 등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공급망 실사법' 등으로 협력사의 ESG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환경오염 등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효성티앤씨는 ESG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지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1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ESG 교육, ESG 진단 및 가이드, 개선 컨설팅을 제공했다. 효성티앤씨는 협력사의 ESG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SG 규제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 회장은 "ESG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기업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라며 "효성을 비롯한 협력사들의 ESG경영 강화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섬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사무실에서도 친환경 실천

효성은 기후 변화에도 긴밀히 대응하기



1 효성 임직원들이 지난 2월 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해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일원에서 아사 위기에서 구조 및 치료한 독수리 3마리를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

2 효성은 지난 2023년 2월 공덕동 효성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3 효성티앤씨는 다 쓴 페트병을 모으면 리사이클 섬유로 만든 가방으로 돌려주는 '페트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직원들이 페트병 수거함 앞에서 리젠 적용 가방과 재활용할 페트병을 들고 있는 모습. /효성

위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환경문제를 향한 젊은 인재들의 관심을 높이고 소통하기 위해 조 회장의 '그린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효성티앤씨 마포·반포 본사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사무실 개인컵 사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탕비실에 비치된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은 없애고, 임직원들에게 개인용 텀블러 구입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페트병 수거'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임직원들이 다 쓴 페트병을 모으면 효성티앤씨의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 '리젠 폴리에스터'로 만든 가방 등으로 돌려주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LA다저스 "계란투척 처벌불원, 출국 때는 이런 일 없길"  
▲'홀런 폭발' 샌디에이고 김하성, LG 트윈스와 연습 경기서 대활약 /사진 뉴시스

▲'양의지 홀런 2방' 두산, 시범경기 8연승...롯데는 4연패  
▲맨유, 연장 접전 끝에 라이벌 리버풀 꺾고 FA컵 4강 진출



▲김시우,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6위...세풀러 2연패  
▲조재호·김가영, 프로당구 월드챔피언십 우승 /사진 뉴시스